

117회 정기대공연 조명팀 인수인계서 (이가은, 서종배, 원혜진, 이소정, 조영진)

1.준비단계

-대본 확정 후: 작품 분석 및 조명 효과 논의

ex. 1막 1장에 등장하는 잔느와 줄리앙의 시선교차 - 색조명 또는 핀조명으로 두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게 하기
장면이 시작되기 전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장치로 '인트로 조명' 넣기 - 잔느가 풀밭에서 풀을 찾다 쓰러지지 전 비바람 치는 풀숲을 표현하기 위해 파란 색조명 사용

-무대 디자인 확정 후: 무대 디자인과 실측된 무대 사이즈를 바탕으로 조명 디자인 짜기

ex. 무대가 이전 공연들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조명을 6개에서 8개로 늘림. (이전 공연은 전체조명 6개 사용)
대파 갯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 색조명은 파란색 하나로 최소화 함.

-조명 디자인 확정 후: 몇 개의 조명이 필요한지 예측하여 부족한 물품 대여 또는 구매, 수리.

ex. 이번 공연의 경우, 필요한 대파 개수가 많아져 라인 역시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라인과 돼지코 플러그를 구매했음. 올전 공연이 먼저라 암수 플러그로 된 라인을 돼지코 플러그로 변환함. (극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솔을 쓸 때는 돼지코 플러그, 명륜 소극장이나 원형극장에서는 암수 플러그를 사용)

***을지로 세운상가에서 라인 및 돼지코+암수 플러그 구매 (라인 100m 100,000원 / 돼지코 + 암수세트 5개 60,000원)**

*대파 램프 대여 관련 - 약대 연극 동아리 광상

이번에 물어봤을때 8개 정도의 대파가 있다고 했으나 매년 수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공연 통틀어 개당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빌렸으며 구성품은 램프+케이블+a형플러그였습니다. 극회에서 관리하는 대파에서 몸통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파 구성: 대파 몸통 + 내부에 있는 동그란 쇠 틀 + 램프)
광상에서는 올전 극장 밑의 창고에서 대파 몸통을 구해서 공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회 내에도 충분히 많은 대파 몸통이 있고, 구할 수도 있으니 이는 빌려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파의 조도가 현재 극회의 조명에 비해 밝고,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극회의 램프들보다 대부분 새 램프이고 램프의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램프의 각도가 넓을수록 빛이 넓고 열고, 좁을수록 빛이 좁고 강합니다, 광상이 더 좁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에는 같은 각도였는데 이번에 바뀐 것 같아 대여할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상에서는 상자 단위로 관리해서 아마 램프의 스펙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민하다는 내용은 현재 극회의 조명엔 올전 콘솔 기준 0에서 10까지 조도를 변경할때 7단계 정도가 육안으로 구분된다면 광상의 조명은 10단계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도를 0에서 3으로 올릴때 극회의 현 램프들은 빛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들어와서 0에서 1정도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해 광상의 램프는 정확히 0에서 3으로 들어온다고 느껴졌습니다. 미리 콘솔에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어렵다면 설치 시에라도 확인하여 위와 같이 조명의 컨트롤이 다르다면 색조명 등 조도의 조정이 크지 않은 효과조명으로 빼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상의 연락처는 제 개인적으로 구했고 여기도 매년 회장이 바뀌어 공식적인 채널이 존재하긴 어렵습니다. 약대 학생회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2.설치단계

-올전 소강당

올전은 바 위에 설치된 쇠 막대기에 조명을 설치한다. 쇠 막대기는 총 2개가 있는데, 무대와 가까운 쪽에는 바닥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고, 무대와 먼 가장 뒤쪽에 있는 막대기에 벽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바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노끈과 테이프 심을 연결한 도구를 위로 던져주어 대파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여 대파를 바 위에 모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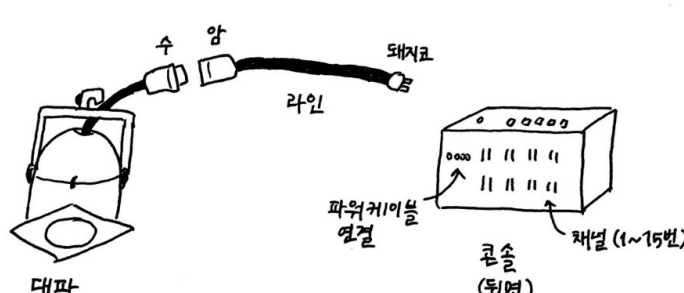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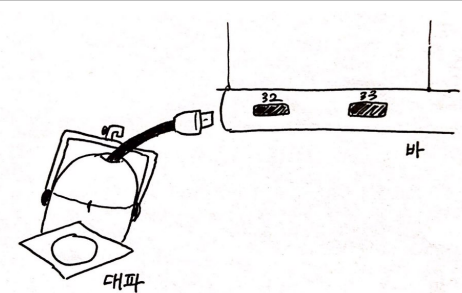
대파를 모두 다 걸어놓았다면 이제 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라인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라인을 들고 올라가서 걸어놓은 대파와 연결하고 사다리 쪽으로 라인을 늘어뜨려서 정리한다. 중간중간 라인이 늘어진 부분들은 관객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케이블 타이나 테이프로 고정한다. 라인을 모두 연결하고 정리했다면 대파와 연결된 부분이 아닌 반대쪽 부분(돼지코 플러그)을 콘솔의 채널에 꼽는다. 콘솔에 있는 채널도 미리 정상

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콘솔은 오퍼실 내에 온풍기와 연결된 선을 빼내고 그 자리에 파워케이블을 연결하여 작동시킨다.

-명륜 소극장

명륜 소극장은 따로 라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무대 왼 쪽 편 커튼 앞 벽에 있는 바 내리는 버튼을 눌러 바를 내린 후, 조명을 걸 면 설치가 끝난다. 소극장에 설치 되어있는 조명이 많이 있으니 이용하는 것도 좋다. 소극장에서 에어리어 잡을 때는 바 내려주는 사람, 에어리어 조정하는 사람, 콘솔 작동하는 사람 최소 3명은 필요하다. 오퍼실 책상에 조명 콘솔 사용법이 적혀 있는 종이가 붙어있으니 보고 사용법을 익히면 된다. 사용하는 조명 개수가 많으면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면 편하지만 조작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조명을 올린 후, 일반 모드로 바꾸고 프로그래밍 된 채널을 조작하면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갔을 때 조작이 먹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블랙아웃을 시킨 후 채널을 다 내리고 다시 한 번 블랙아웃 버튼을 눌러야 조작이 가능하다. 소극장은 오퍼실 조명이 따로 있어서 암전 때 영향이 없을 정도의 밝기로 오퍼실 조명을 켜 놓을 수 있다.

*울전/명륜 조명 설치 방법

울전 (소강당)	명륜 (소극장)
	
대파 - 라인 (한쪽은 암수, 한쪽은 돼지코) - 콘솔 채널	대파 - 바 (천장에 달려있는 바 사용)
제반조사 때 대파, 라인, 채널 작동 여부 확인해야 함	대파, 채널 작동 여부 확인해야 함

3. 큐시트 작성

큐시트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조명 개체 단위로 표를 짜 가시적으로 짜야 열은 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요소가 몇가지 있습니다.

매 액션(조도의 변화)에 직전 대사("그렇고 말고요."), 실제 큐(웃음소리가 시작되면), 컷 or 딤, 딤일 경우 몇 초 딤인지,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조명 변화 지시문(암전, 크로스 등)이 필요합니다. 예시는 저희 큐시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뒷깍기를 진행하며 조명 큐가 실제로 몇 초 세야하는게 있거나 할 경우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좋으며 자신이 큐시트를 읽으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애매한게 있으면 안됩니다.

4. 평반

조명을 처음하는 팀원이 3명이나 있었는데, 조명에 익숙한 선배가 진행과정에서 빠트리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어서 잘 배울 수 있었다. 일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일정을 맞춰 가능한 사람이 다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던 게 프리라이더가 없게 되었던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오퍼는 하루에 2회 공연일 경우 같은 사람이 하루종일 오퍼를 보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다.